

'97 상반기 방산간담회 열려

- 방산업계 현안사항 건의 및 토의

방산 관련 제도 개선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공지하고 방산업계 현안 관심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97년 상반기 방산 간담회가 이청남 방위사업실장 주재로 지난 4월 30일 정부 및 업계 측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국방부는 시간과 비용 단축에 주안을 둔 무기체계 획득관리 규정 개정(안)을 비롯해, '97 방위산업 육성기금 용자 추천,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정비계획, 허위 원가자료제출 예방 및 제재, 국과연 출입시 '전산장비의 휴대금지 협조', 국품연의 '업체평가계획' 등 주요사항을 공지하였다.

이어 방산업계는 방산 후속물량의 창출과, 방산물자 조기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사전 생



산 물자의 사전납품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문·계열화의 완화와, 방산 육성기금이 중소기업에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규제를 완화하고, 한시적인 방산용품 관세감면 제도를 연장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게 원가규칙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민·군 겸용기술 개발 본격 추진

- 국방비 대비 기술개발 투자 7%로 확대

대우 중공업은 K-200 장갑차 개발에서 대당 5천만원인 美 Detroit 디젤 엔진 대신 8백만원인 국산 버스용 MAN 2848 엔진을 장착해 장갑차 사업에서 정비기간 단축 및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는 민수 기술이 군수장비에 이용된 좋은 예다.

앞으로 첨단 과학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민

간과 군(軍)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군 겸용 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민·군 겸용기술은 군이 첨단 무기를 취급하면서 축적된 기술을 민수 사업으로 전환하고 민간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함으로써 기술활용을 다각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미국, 러시아, 일본 등에서는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민·군 겸용기술

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5월 1일 金泳三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기술 전쟁에서는 민·군이 따로 없다」는 인식을 갖고 연구 개발 주체간 유기적 협력 체제 강화, 기획사업 추진 및 기술 개발 투자의 확대, 군수 제품 규격의 한국화와 제품 활용 촉진, 관련 법령의 보완과 추진기획단 설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핵심 시범화 사업은 구조용 티타늄합금, 탄소 및 탄소 복합재료, 리튬이온 전지, 초고주파 부품, 비동기 전송 방식 스위치 기술, 전자력·전자열 가속 기술, 고출력 마이크로파 연구, ER 및 MR 유체 응용기기, 무인화 운행 기법 개발 등이다.

이와 함께 현재 3% 수준인 국방비 대비 기술 개발 투자를 2000년대 초까지 7%로 확대해 국방 관련 기술 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해야 하고 국방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수분야에도 투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3일에는 國科硏이 주최한 토론회가 「민·군 겸용기술 개발 추진 방안」을 주제로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國科硏 김영수 박사는 인사말을 통해 “민군 겸용 기술 개발과제를 국과연, 과기처, 통산부, 정보통신부, 방산업체 및 국방부 지정 연구기관으로 부터 181개의 과제를 접수해 평가를 완료하였고 현재 9개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형성, 2차 평가를 수행 중”임을 밝혔다.

이날 국방부 민영기 획득기획과장은 『민·군 겸용기술 개발 필요성』을, 國科硏 허주 박사는 『민·군 겸용기술 개발 추진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 후 열띤 토론을 벌였다.



'97 제3차 방위력 개선 사업

* 차기보사 시설 및 장비

이 사업은 현 보병사단을 장차전 양상에 부합되는 차기보병사단으로 구조개편하기 위해 소요되는 편제장비를 확보하고 시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93년 개편안이 확정된 이래 연차적으로 승인되어 온 계속사업이다.

이번에는 구조개편에 필요한 화력, 기동, 공병장비 등 각종 편제장비 부족분 확보와 시설물 신축 및 보수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약 300여 억원 집행이 승인되었다.

* 차기 AM무전기 사업

전자방해방어(ECCM)기능 내장으로 지휘통신망의 생존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신형 AM무전기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95년 연구개발이 완료된 이후 연차적으로 승인되어 온 계속사업이며, 이번에는 장비구매를 위해 약 400여 억원이 집행승인되었다.

신형무전기가 전력화됨으로써 현용 다양한 기종으로 운영되던 AM무전기가 단일화되어 정비 및 보급지원이 용이해지며, 차량/휴대/고정용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이 가능해졌다.

* 『다목적 전술차량』 사업

박격포 운송차의 궤도화로 야지 기동력 증대와 사격을 위한 인원, 탄약, 부수장비를 일체화함으로써 작전반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전술차량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94년 무기체계로 채택된 이후 연차적으로 집행승인을 받아온 계속사업이며, 이번에는 주 장비 및 부수기재를 구매하기 위해 약 100여 억 원이 집행 승인되었다.

장비제작은 아시아 자동차에서 기술도입 생산하고 있으며, 수륙양용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 『경대전차 무기』 사업

적 기계화부대 공격에 대한 다중의 대전차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기갑 무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92년 무기체계로 채택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이 승인된 계속사업이다. 이번에도 발사기, 탄약 등 장비일체를 구매토록 약 40여 억원이 집행승인 되었다.

생산업체는 독일Dynamit Nobel社이며, 전차, 장갑차, 콘크리트 방카 등 다양한 목표물에 대해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대전차무기이다.

* 『K-1전차 예비중량물』 사업

전시 K-1전차의 지속적인 가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에 긴요부속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매년 단년차로 추진되는 계속사업이다.

이번에는 생산기간이 장기소요되는 엔진 등을 포함한 다수품목을 구매하기 위해 약 200여 억 원 집행이 승인되었다.

* 『전투함 관급장비』 사업

• 구축함장비 구매사업

건조중인 구축함에 소요되는 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함건조 진도와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지는 계속사업이다.

이번에는 항해, 대잠작전, 구조작전 및 해저 탐사지원 등에 필요한 장비인 “측심기” 구매를 위해 약 2억여원이 집행 승인되었다. 장비 제작국은 독일이며, 수심 및 해저경사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 잠수함 장비 구매사업

건조중인 잠수함에 소요되는 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함건조가 승인된 이후 연차적으로 필요한 장비구매가 지속되어 온 계속사업이다.

이번에는 작전통신의 보안을 보장하는 “통신보안장비”와 지속작전을 보장하기 위한 “함상 수리부속”을 구매토록 약 50여 억원이 집행승인 되었다.

* 『해군 시설공사』 사업

• 기뢰시설

전투함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뢰를 저장하고 정비하는 시설 및 지원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96년 집행승인된 시설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에 시설공사 비용으로 약 100억여원이 집행 승인 되었다.



아시아의 BV 206

• ○○기지 통신공사

현재 진행중인 해군기지 시설공사 중 유·무선 통신시설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재를 확보하기 위해 약 150여억원이 집행승인되었다.

• 건설거공사

함정정비에 소요되는 건설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설계보상비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약 10억원이 집행승인되었다.



IAI사의 하비 UAV

* 대공제압 무인기 사업

공격편대군 전력의 생존성 및 임무성공률 증대를 위해 적 대공위협 레이더를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96년에 시험평가 및 시설공사 설계를 수행하였고, 이번에 주장비 및 부수장비구매와 시설공사비 등으로 약 500여억원이 집행 승인되었다.

생산업체는 이스라엘 "Israel Aircraft Industries社"이며, 주요성능은 임무지역에서 장시간 체공하면서 우군기에 위협이 되는 적 대공무기레이더의 작동중지를 강요하거나, 필요시 탐지·공격·무력화함으로써 적위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 항공전자정비장 장비 사업

정밀 전자무기체계에 대한 군내 창정비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신속한 군수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기승인사업으로 건설중인 "항공전자정비장"에 설치할 창정비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공대공유도탄의 핵심부품인 유도 통제부품에 대한 창정비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약 150여억원이 집행승인되었다.

* 공군 시설공사 사업

• 복수 활주로 건설 환경영향평가

○○기지에 복수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약 1억원이 집행승인 되었다.

복수활주로건설은 유사시 전술기의 대량 긴급발진능력 및 피폭시 기지생존성 증대를 확보케하며, 또한 군·민용항공기가 동시 사용하는 현 여건하에서 군작전과 민간 항공기 운항을 모두 보장하게 된다.

• 장거리 레이더

동해에 대한 원거리 탐지능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거리 레이더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부지매입 및 수용시설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 6억원이 집행승인되었다.

* 압축영상전송체계 사업

과거 문서 전송방식으로 전파되던 영상정보를 전자식 영상전송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95년 연구개발이 완료된 이후 기승인을 받아 전력화중인 계속사업이다.

이번에 추가사업을 위해 약 20여억원이 집행 승인됨으로써 사업추진이 완결되었다.

"압축영상전송체계"가 운용됨에 따라 수집/분석부대에서 처리된 각종 영상자료들이 체계망에 가입된 전 부대에 근실시간에 전파됨으로써 정보의 가치상실을 방지하고, 신속한 작전대응능력이 확보된다.